

정읍시, 세계 혁명 도시와 연대회의의

동학농민혁명 128주년 기념 6일까지 5개국 참여 국제컨퍼런스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 128주년을 맞아 6일까지 3일간 세계의 혁명 도시 초청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정읍 황토현 전적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에서 열려 정읍시와 기념재단의 협력사업으로 진행된다.

시는 올해 '제1회 세계 혁명 도시 연대회의'에 아르헨티나의 알타그라시아, 아일랜드의 더블린, 독일의 뮐하우젠, 일본의 삿포로, 중국의 옌안 등 5개 도시의 농민혁명 연구자와 활동가를 초청했다.

특히, 남미의 전설적 혁명가인 체 게바라의 친조카인 마틴 게바라 두아르테가 컨퍼런스에 직접 참석해 발제를 맡았다. 마틴 게바라 두아르테는 체 게바라의 다섯 형제 중 막내인 후안 마틴의 장남으로 현재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등에서 게바라 연구가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 외에 아일랜드 독립투쟁의 현장인 더블린에서는 시립도서관 부관장인 브렌든 킬링이 참석해 더블린의 저항정신과 기념사업을 발표한다.

또 독일 뮐하우젠에서는 '독일농민전쟁 500주년'이 되는 2024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 뮐하우젠 박물관의 연구사인 크리스티나 페로의 설명이 진행된다.

일본에서는 홋카이도의 저항정신과 마츠리에 대해 삿포로 대학의 젊은 연구자인 요코시마 고지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동학농민혁명 동상 '불멸, 비림길'.

<정읍시 제공>

이와 함께 중국은 대일항전과 대합창의 도시 연안을 주제로 대규모 합창이라는 색다른 방식의 기념사업을 리우신위에게 소개한다.

세계 혁명 도시들의 발표에 앞서 5일 오전 이학수 시장과 해외 참석자들은 정읍 황토현 전적의 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군상에 헌화하고 혁명 도시 간의 연대선언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시는 이번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정읍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혁명정신의 세계적 확산과 도시 간 연대라는 새로운 가치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추모와 위로' 중심에서 '희망과 미래'를 향한 메시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제 컨퍼런스가 소수 연구자들의 학문적 전치가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정읍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중 핵심지역인

고부관아터, 만석보터, 황토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등을 재정비하고, 황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도 시민 중심으로 바꿔 나갈 계획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뿐 아니라 기념사업의 중심지로서 역사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이제는 기념사업 자체를 새롭게 혁신해야 한다"며 "이번 세계 혁명 도시 연대 회의가 이러한 사업의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을 넘어 전세계에서 일어난 민주와 평등을 위한 도시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선도하며 미래가치를 이끄는 '혁명도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한 해외 참가자들과 시민들은 6일 정읍의 주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답사하며 기념사업의 경험과 방식을 공유하는 작은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2023년은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

선운산에 홍보간판

고창군이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를 앞두고 선운산도립공원 주차장 대표소앞에 대형 홍보간판(사진)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울거울 단풍철을 맞아 거리두기 완화와 야외 마스크 전면 해제로 많은 관광객이 선운산을 찾았다. 이에 고창군은 도립공원 선운산에 홍보간판을 설치해 고창방문의해 분위기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선운산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인 천오백년 고찰 선운사를 비롯해, 템플스테이, 국민여가캠핑장, 유스호스텔, 경관폭포를 포함해 풍천장어, 복분자 등 볼거리와 먹거리가 많아 사계절 관광지로 손색이 없다.

박진상 고창군 산림공원과장은 "선운산도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더 깨끗하고, 더 안전하게 시설물 유지관리와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운산을 찾는 모든 관



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공해 다시 찾고 싶은, 머물고 싶은 선운산 도립공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문학회 '정읍문학' 22집 발간

정읍문학회가 회원들의 주옥같은 작품들을 엮어 정읍문학 제22집을 발간했다.

작품집은 '좋은 글로 사회의 밝은 빛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의미로 오은식 도예가의 트임기법을 이용해 만든 자기조명 '2020 빛' 사진을 표지화로 정했다.

제10회 정읍사문학상 수상자인 박복영 시인의 시 '내장산 화합기행'과 이중열 작가의 수필 '전년의 기다림', 작품 심사평 등을 실었다.

또 회원 김만권, 김인숙, 김준식, 김철모, 류승훈, 문순애, 박관호, 송병섭, 이성자, 이재만, 이재형, 정병성, 홍진용 등의 작품을 담았다.

정읍 출신 장지훈, 김현조 시인의 작품을 초대 시로 올렸고,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시조 '고무신'으로 유명한 정읍 출신 장순하 시조 시인의 위상과 작품세계를 조명했다.

최명표 평론가의 평론 '정읍문학의 현단계'를

통해 독자들이 문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정읍 출신 유명작가들의 문학세계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꾸몄다.

김철모 정읍문학회회장은발간사에서 "유(有)는 무(無)에서 나온다고 강조하면서 '정읍시민의 품에 문학의 향기'를 모토로 회원들 모두가 좋은 글을 쓰기 위해 더욱더 정진하고, 정읍문학의 폭을 더 넓힐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젊고 유능한 신인회원들을 발굴하여 젊고 힘 있는 글들이 많이 실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 농특산물업체 3곳, 도지사 '인증상품' 선정

'복분자 민물장어구이'·'도라지청' '바로바로잡곡' 인증서 수여

고창군 농특산물 생산·판매 업체들이 전북도지사 '인증상품'으로 선정됐다.

고창군은 아이보리영농조합법인(대표 장현정), 더좋은협동조합(대표 김중학), 더좋은협동조합(대표 황의민)이 2023년 전북도지사 인증상품 '농축수산물 분야'와 '전통 가공식품 분야'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 중 품질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상품을 발굴해 전라북도지사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7월 2023년 전라북도지사 인증상품 선정 계획 공고 후 상품경쟁력 및 시장반응, 기업경영인의 기업관 및 의지, 시설 및 위생환경, 적정 원재료 사용 여부 등을 면밀한 검증과 심사평가를 통해 도내 35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아이보리영농조합법인의 '바로바로잡곡'은 국산 잡곡 6곡(현미, 찰쌀, 귀리, 질흑미, 찰보리, 찰



참바다 '복분자 민물장어구이' 더좋은협동조합 '도라지청' 아이보리영농조합 '바로바로잡곡'

현미)으로 만든 1회 분량 개별 포장 간편 세척 제품으로 바쁜 현대인이 섭취하기 어려운 잡곡을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상품 경쟁력으로 시장 반응이 좋고, HACCP 인증업체로 철저한 위생과 품질관리를 원칙으로 생산된 제품이다.

참바다영농조합법인 '복분자 민물장어구이'는 여름철 대표 보양식 중 하나인 장어를 원재료로 양념에 고창 복분자를 이용, 생산의 최대 단점인 비린내를 최소화해 해섭(HACCP) 인증시설을 통해 생산한 제품으로 일반 브랜드의 장어구이보다

경쟁력이 있고, 식품위생 안전관리와 차별화된 제품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상품이다.

더좋은협동조합은 HACCP, 6차산업, ISO 22000 국제인증 등 다수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6년근 약도라지에 보약 재료인 쌍화탕 약재 9가지를 넣어 엿기름에 발효한 '도라지정수'를 제조해 상품을 인증받았다. 3개 업체는 인증서와 함께 전북 우수상품관 입점, 제품 판로개척과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등 내년부터 3년간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개관 5주년 특별전

내년 2월 26일까지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이 개관 5주년을 맞아 개최한 특별전 '김병중 40년, 붓은 잠들지 않는다' 제2부가 내년 2월26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특별전 제2부는 '바보예수, 상선약수(上善若水), 여락(魚樂)'으로 미술이 종교, 철학을 만났을 때 파생되는 서사적 효과를 느껴볼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된다.

특히 1989년 개인전 '아름과 닻'에서 발표된 '바보예수'가 대거 전시되며, 김병중 화백의 신앙 고백이자 당시 정치와 사회를 반영한 명작으로 꼽힌다. 서양의 아이콘인 예수를 동양적 화풍으로

그려내면서 인간 예수를 넘어선 서민 예수의 친근함을 담아 기성의식을 파격적으로 탈피한 명작이다.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관계자는 "누구보다 시적이고 서정적인, 때로는 종교와 철학을 끌어들이며 한국화의 지평을 개척하고 있는 김병중 화백의 특별전이 두 번째 배일을 벗었다"며 "유럽 미술비평가들이 에메이징을 외치며 호평했던 수목의 예수상을 보기 위해 방문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날 13일 막을 내린 특별전 제1부 '화홍산수, 송화분분(松花紛紛)', 풍죽(風竹)'에는 전시기간 63일간 1만 7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함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IBO | 159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